

금호석화그룹, 신소재 R&D 강화 친환경·배터리 등 사업확장 속도

금호석화 등 계열사 사업 고도화
기술력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
“탄소저감 등 산업현장 변화 대응”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연구개발(R&D)을 앞세워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친환경 소재와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글로벌 석유화학업계의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캠 등 계열사별로 주력 제품 고도화와 신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용 타이어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합성고무인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SSBR)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연산 3만5000톤 규모의 증설을 마치고 상업생산에 들어가면서 고부가 합성고무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

친환경·마래 소재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연간 약 7만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를 구축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폐가전에서 회수한 재활용 아크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연구원들이 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릴로나이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ABS)을 자동차 내장재용 고사양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도 개발했으며 포스코퓨처엠, 비이아이(BEI)와는 차세대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수용성 친환경 에폭시 제품의 개발·상용화를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을 줄이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작업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오 기반 원료를 적용한 저탄소 에폭시 기술도 고도화하며 석유계 원료 의존도와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설비 투자와 인증 획득을 병행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인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의 생산능력 확대와 친환경·고기

능성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연산 10만톤 규모의 디보틀네킹 투자를 마치고 생산능력을 71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 원료를 함유한 폴리우레탄 시스템과 자동차 시트용 경량 소재, 고성능 흡음재용 제품 개발에도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호폴리캠은 최근 연산 7만톤 규모의 5라인 증설을 마치고 특수합성고무인 에틸렌프로필렌디엔모노머(EPDM) 생산능력을 연산 31만톤으로 확대했다. 새 생산라인에는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초저온 중합 기술을 적용하고 저압 냉동기와 폐열 회수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금호폴리캠은 전기차용 경량 소재와 주행 소음 저감 소재, 열전도·절연 소재로 제품군을 확대해 고부가 특수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업황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존 주력 사업의 기술 고도화와 함께 재활용·탄소저감·차세대 배터리 소재 등 신규 분야로 연구개발 범위를 넓혀 산업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모비스, PE 시스템 등 유럽 생산 확대

슬로바키아 노바키 신공장 가동

현대모비스가 유럽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Power Electric)시스템 양산에 돌입하며 현지 전동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핵심 부품의 현지 생산능력까지 확대하면서 그룹 차원의 유럽 전동화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2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트렌친주 노바키에서 PE시스템 신공장 가동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바키 공장은 현대모비스가 유럽에 구축한 첫 PE시스템 생산 거점이다. 체코와 스페인에서 배터리시스템(BSA)을 생산하고 있는 데 이어 유럽 내 세 번째 전동화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PE시스템은 전기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전기차 구동 핵심 장치로, 사실상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린다. 신공장은 약 10만6000㎡ 부지에 연면적 85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연간 28만개의 PE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약 2500억원을 투입해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유럽 고객사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의 유럽 현지 생산 확대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사업과도 맞물린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3만1032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전동화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현지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면서 완성차 판매 확대에 따른 부품 공급 안정성과 대응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거점을 두고 있어 유럽 전동화 부품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현대모비스는 노바키 공장을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전동화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국내 출시

256GB 단일 모델… 104만5000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의 인공지능(AI)과 카메라 주요 기능을 담으면서 가격 부담은 낮춘 ‘갤럭시 S26 FE’를 내놓는다. 원하는 인물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영상 편집부터 움직이면서도 수평을 유지하는 촬영까지 최신 기능을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4일 갤럭시 S26 FE를 국내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256GB 단일 모델로 블루베리와 그라파이트, 피스타치오 등 3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가격은 104만5000원이다.

갤럭시 S26 FE에는 최신 소프트웨어인 원 UI 9(One UI 9)를 기반으로 S26 시리즈와 최신 폴더블폰에서 선보인 촬영 기능을 적용했다. ‘마이 팬캠(My FanCam)’은 영상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움직임을 자동으로 따라가며 화면 중앙에 배치한다. ‘슈퍼 스테디(Super Steady)’에는 수평 고정 기능을 지원해 움직이면서도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할 수 있다.

AI 기반 개인화 기능도 강화했다. ‘나우 브리프(Now Brief)’는 날씨와 건강 등 필요한 정보를 모아 보여주며, ‘나우



삼성전자 모델이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갤럭시 S26 FE’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넛지(Now Nudge)’는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해 다음에 필요한 작업을 제안한다. ‘서클 투 서치 위드 구글(Circle to Search with Google)’은 이미지 속 여러 제품이나 장소, 사물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능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전작의 엑시노스 2400에서 3나노미터(nm) 공정 기반 엑시노스 2500(Exynos 2500)으로 교체했다. 카메라는 후면에 5000만 화소 광각과 1200만 화소 초광각, 800만 화소 망원 등 3개를 탑재했으며 전면에는 1200만 화소 카메라를 적용했다.

/구남영 기자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등 AI 홈 신기술 공개

유럽 가전 전시회 ‘IFA 2026’ 참가
홈로봇 등 150개 제품·솔루션 선보

LG전자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A 2026’에서 인공지능(AI) 가전부터 에너지 관리까지 아우르는 AI 홈 신기술을 공개한다. 이용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해 가전을 스스로 제어하고 집 안의 에너지 사용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LG전자는 오는 4일부터 닷새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6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3745㎡ 규모의 전시 공간에서 약 150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먼저 AI 홈 허브 ‘LG 씽큐 온(ThinQ ON)’에 자율형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씽큐 클로(ThinQ Claw)’를 처음 공개한다. 이용자와 대화하며 생활 패턴과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하는 기술이다.

씽큐 클로를 활용하면 외출 중에도 채팅으로 집 안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 웹 검색과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와도 연동된다. 귀가 시간에 맞춰 실내 온도와 공기질을 조절하거나 보유 식재료와 가족 일정을 바탕으로 메뉴와 조리 순서를 제안하는 식이다.

집 안의 전력 사용을 관리하는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도 선보인다. LG전자가 2024년 인수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애틜움(Athom)의 ‘호미(Homey)’를 활용해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하나로 연결한다.



모델이 홈로봇 ‘LG 클로이드’의 지휘 아래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되는 모습을 담은 전시 콘텐츠 ‘LG AI 오케스트라’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호미는 가전과 조명, 센서 등 5만개 이상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이를 활용해 집에서 생산·저장·소비되는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고 전력 사용을 효율화한다.

AI 홈 사업은 기업간거래(B2B) 시장으로도 넓힌다. ‘LG 씽큐 프로(ThinQ Pro)’를 통해 빌딩과 오피스의 가전과 HVAC, 에너지 설비를 통합 관리한다. 호미 역시 향후 다세대 주택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B2B 솔루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 주거환경에 맞춘 가전 신제품도 대거 공개한다. LG전자는 빌트인 수준의 공간 활용성과 고효율 기술을 결합한 ‘핏 앤 맥스(Fit & Max)’ 제품군을 냉장고에서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까지 확대한다.

냉장고는 벽면 가구에 밀착해도 문을 최대 110도까지 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유럽 표준 가구 깊이인 600mm를 유지하면서 내부 용량을 확보했다. 식기세척기는 문을 열 때 하부 가구와의 간섭을 줄이는 구조를 적용했다.

에너지 효율도 강화했다. 세탁기는 유럽 최고 에너지 효율 등급인 A등급 기준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70% 추가로 줄였다. 식기세척기와 냉장고도 각각 A등급 기준보다 30% 가량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올해 말 출시하는 건조기 신제품은 기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높인다.

TV와 프리미엄 가전도 전시한다. 83형 무선 월에이퍼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W’를 비롯해 2026년형 LG 올레드 에보 AI와 마이크로 RGB 에보 등을 선보인다. 풀HD(FHD) 해상도에서 1000헤르츠(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홈 오디오 시스템 ‘사운드 스위트’도 전시한다.

전시장 입구에는 홈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가 지휘하는 ‘LG AI 오케스트라’를 마련한다. 가전과 TV, 공조 제품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모습을 통해 가사 노동을 줄이는 ‘제로 레이버 홈(Zero Labor Home)’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스코-BHP,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맞손’

저탄소 제철 기술개발 구체화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글로벌 원료사와 공동 검증에 나선다. 다양한 철광석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 원료별 성능을 확인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구체화한다.

포스코는 경북 포항 청송대에서 호주 광산기업 BHP와 수소환원제철 협력 계약(HyREX Collabo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법인 HyREX의 상용 기술 검증에 협력한다. 포스코는 BHP의 철광석을 활용해 다양한 원료 환경에서 기술 성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HyREX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

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실제 원료 조건에서 공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철광석의 특성과 품질에 따른 성능 변화를 시험해 최적의 원료 조건을 도출한다. BHP는 차세대 저탄소 제철 공정에서 자사 철광석의 활용성을 검증한다.

양사는 수소환원제철 원료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원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3 탄소 배출 저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0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양사 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